

조선족설화의 전승과 변이

임 철 호(전주대)

〈목 차〉

1. 서론
2. 조선족설화집의 유통 현황
3. 조선족설화의 전승과 변이의 실장
4. 결론

1. 서론

본고는 조선족설화의 전승과 유통 과정에 나타나는 변이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조선족설화와 조선족설화집이 어떤 과정으로 전승, 유통되고 있으며, 전승과 유통의 과정에 어떤 변이들이 나타나고 있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변이들이 조선족설화의 성격과 의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조선족설화의 연구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 지도 살펴볼 것이다.

조선족설화는 민간문학 작가들이 조선족의 구비설화를 수집 정리하여 발표하거나 간행한 문헌설화이다. 조선족의 구비설화는 19세기 중엽 조선족과 함께 형성되었지만, 조선족설화는 1954년 정길운이 <주먹담판>을 발표하면서 형성되었다.¹⁾ 조선족설화는 수집과 정리, 발표와 간행의 과정에 작가의 개

1) 길운, <주먹담판>, 『연변문예』, 1월호, 연변인민출판사, 1954.('길운'은 '정길운'의 필명)

성과 역량은 물론 당국의 지침과 이데올로기가 개입되면서 구비설화와는 다른 장르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²⁾ 따라서 조선족설화와 조선족설화집의 전승과 유통에는 반드시 수집 정리한 작가와 수록된 문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명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선족설화의 전승과 유통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는 그동안 조선족설화가 개인작이라기보다는 ‘조선족의 설화’라는 막연한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조선족설화가 조선족의 설화, 혹은 구비설화와 같은 개념으로 인식되면서 제보자는 물론 수집 정리한 작가들이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족설화는 100여 종의 설화집으로 간행되었고, 이들 설화집에 수록된 누적 작품 수가 만여 편에 이른다. 본고는 논문이라는 한계 때문에 모든 작품의 전승과 변이, 그리고 유통의 현황을 살펴볼 수는 없다. 전승과 유통의 과정에 나타난 변이를 몇 개 유형으로 나누어 대표적인 사례 중심으로 고찰하려 한다. 본고는 향후 조선족설화의 연구에서 자료의 선정의 중요함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2. 조선족설화집의 유통 현황

2.1. 중국 현지의 유통 현황

‘조선족의 설화집’은 1898년 가린 미하일롭스끼의 『백두산민담』으로부터³⁾ 2008년 김재권의 『황구연전집』에 이르기까지 백여 년 동안 백여 종의 작품집으로 간행되었다. 『백두산민담』처럼 러시아어로 된 것도 있고, 유건봉의 『長白山江崗志略』(1908)과 같이 중국어로 된 것도 있다. 『玉女池』(1980)와 『朝鮮族民間故事選』(1982)은 조선문으로 간행된 것을 중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金德順故事集』(1982)은 배영진이 제보자 김덕순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중국어로 정리한 것이다.

조선족문학의 한 장르로서의 ‘조선족설화’가 1954년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2) 임철호, 「조선족설화의 형성과 장르적 성격」, 『우리말글』, 45집, 우리말글학회, 2009.

3) 김동훈, 『중국 조선족 구전설화 연구』, 한국문화사, 1999, 384면.

이보다 먼저 간행된 ‘조선족의 설화집’은 엄격한 의미에서 ‘조선족설화집’으로 볼 수 없다. ‘조선족의 설화’를 모아놓은 ‘조선족의 설화집’일 뿐이다. ‘조선족설화집’으로 간행된 첫 문헌은 정길운 등이 수집 정리한 『인삼처녀』(1962)로, 조선족설화의 첫 작품 정길운의 <주먹담판>이 발표된 지 8년만에 간행되었다.

김례삼의 『천도복숭아』(1980)와 박창목의 『사랑산』(1982) 등은 정리자 중심으로 간행된 설화집이다. 『金德順故事集』, 『천생배필』(1986: 황구연 구술), 『팔선녀』(1987: 차병걸 구술) 등 제보자 중심의 설화집도 있다. 『각쟁이양반』(1981: 김충묵 등), 『짜개바지』(1984: 장동운 등) 등과 같이 여러 작가들이 공동으로 간행한 설화집도 많다.

『꽃사슴』(1983), 『소년부사』(1985), 『백두산전설』(1989), 『하하하 호호호』(1989), 『항일전설설화집』(1990), 『도적잡은 이야기』(1990), 『호랑이옛말 50컬레』(1993) 등은 주제나 소재별로 간행된 설화집이다. 조선족설화에는 아이들의 지혜담이 많은데, 조선족설화가 아동교육의 중요한 교재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족설화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화(笑話)는 조선족의 고단한 삶과 현실을 잊게 하려는 오락적 기능을 갖는다.

『조선족 민간문예자료집』 제1집·제2집(1963: 연변민간문예연구조), 『연변 민간문학집』(1979: 연변민간문학연구회), 『옥녀지』(1980: 연변조선족자치주 민간문학집성편위원회), 『민간문학자료집』③(1982: 중국민간문예연구회 연변분회), 『민간문학자료집』④(1984: 중국민간문예연구회 연변분회), 『삼돌이와 호랑이』(1986: 흑룡강 민간문예연구회 조선족회원), 『蓮花仙子』(1984: 요령성 관전현 문화관·관전현 민족사무위원회) 등은 정부의 문예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간행한 설화집이다. 개인 차원의 작품집 간행이 어려웠던 당시의 사정과 설화의 교훈성과 사회성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조선족 민간문예자료집』 제2권과 『민간문학자료집』③에는 ‘수집자’만 명기되어 있다. 대부분의 경우 한 사람이 수집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옥설봉>(『민간문학자료집』③)은 ‘리천록, 리룡득’ 2인으로 되어 있다. 같은 설화집에 실린 <세 자매 강>, <함흥차사> 등은 “강문원 구술, 정리”로 되어 있는데, 강문원이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다. 이처럼 제보자가 곧 정리자인 경우는 『조선족 민간문예자료집』 제2집에도 보인다. 여기에는 한병률이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한 90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족설화의 초기 화자와 청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구비설화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나타낸 것이다. 한병률의 경우 화자인 자신이 동시에 청자가 되고, 청자인 자신이 수집 정리한 작가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구술의 과정이 생략된 채 정리한 것이 된다. 이로 인해 조선족설화의 원자료인 조선족 구비설화와 이를 수집 정리한 조선족설화의 경계가 모호하게 되었다.

『민간문학자료집』(4)는 ‘박창묵, 김태갑, 김재권 수집’, ‘중국민간문예연구회 연변분회 편’으로 되어 있다. 세 사람이 ‘중국민간문예연구회’의 문예정책을 바탕으로 수집과 정리 작업을 공동으로 했음을 의미한다. 정부단체에서 간행했거나 여러 작가들이 공동으로 간행한 설화집에서 정리자를 밝히지 않은 것은 집단적 사회의식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조선족설화가 지니는 개인 작으로서의 성격은 약화된다.

조선족설화집에는 ‘자료집’, 혹은 ‘內部資料’로 되어 있는 것이 많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간행한 것이 아니었음을 나타낸 것인데,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재를 제공한다는 목적이 있었다.

기본상 좋은 작품 중의 여러 가지 독소가 섞여 있는 것은 반면적 연구용으로 삼기 위하여 그대로 두었으니 읽을 때 비판적으로 보기 바란다.(『조선족 민간문예자료집』, 제2집, <서언>)

이 책은 민간문예와 문학, 역사, 민속, 종교신앙 등 방면의 연구에 자료를 제공하며 우리의 작가예술가들의 창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 편찬된 것이므로 일정한 연구가치가 있는 자료들은 모두 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원 이야기의 구술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수준이 높지 못함때다가 시간이 촉박한 탓에 일부 이야기들은 수집자의 정리성분이 적지 않게 들어갔으며 일부 이야기들은 수집한지가 오래되어서 구술자와 수집시간, 수집지점을 밝히지 못한 까닭에 자료로서는 손색이 있을 줄 변연히 알면서도 그대로 실었다.(『민간문학자료집』③, <서언>)

조선족설화의 정리와 전승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수집 정리자와 편집자의 개입 여부와 정도이다. 위의 <서문>을 통해 자료집으로 간행할 때에는 정리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정리자와 편집자의 개입 여부와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수집 당시의 원자료, 이를 정리한 원작, 발표되거나 간행된 작품을 비교해야 한다. 그러나 원자료와 원작이 남아 있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정리자와 편집자의 개입 여부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吉林省民間文學集成』(1987)은 중국어로 간행된 설화집으로, 중국의 다른 민족에게 조선족설화의 실체를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이 책은 문예지 등에 발표되었거나 이미 간행된 설화집에 들어 있는 조선족설화 283편을 선정하여 번역한 것이다. 『중국 조선민족 문학선집·구비문학』(1993)은 대표적인 조선족설화 237편을 선정하여 원문 그대로 수록한 선집이다. 각 편에는 제보자의 정보와 수집, 정리한 작가를 밝혔다. 조선족설화가 축적되는 과정에 위와 같이 번역되거나 선집의 형태로 다시 간행되는 과정에 다양한 변이가 일어났다.

다음 표는 조선족설화 <진달래>의 전승과 유통의 현황이다. 다양한 전승과 유통의 과정에 작가의 변이가 일어났다.

번호	작품명	설화집, 간행 및 편저자	정리자
①	진달래	1979 『조선족문학선문집』 최용린·최건	주선우
②	진달래	1979 『연변민간문학집』 연변민간문학연구회	선우
③	진달래	1982 『朝鮮民間故事選』 연변민간문학	善禹
④	金達萊	1987 『吉林省民間文學集成』 연변자치주	善禹
⑤	진달래	1988 『연변의 견우직녀』 민간문학연구회	普禹
⑥	진달래	1992 『연변지역 조선족 문학연구』 소재영	보우
⑦	진달래	1993 『중국조선민족문학선집⑧』 김동훈	선우
⑧	진달래	1994 『중국조선족 구전설화』 박창묵	선우
⑨	진달래	2008 『황구연전집09』 김재권	김재권 ⁴⁾

주선우는 ‘선우’라는 필명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문헌 ⑤에는 정리자가 ‘善禹’로 되어 있다. 작품 ③은 ②를 중국어로 번역한 것이고, 작품 ⑤는 중국어로 된 ③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주선우가 ‘善禹’, ‘보우’라는 필명을 사용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善’자와 ‘普’자가 비슷하여 착각에 의한 변이로 보인다. 본명과 필명을 사용하고, 조선어로 된 작품을 중국어로 번역하고, 이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 작가의 이름에서 변이가 일어난 대표적

4) 제목은 같으나, 내용은 ①~⑧과 전혀 다르다.

인 경우이다.

조선족설화의 유통 과정에 제기되는 문제 가운데 또 하나는 공동으로 간행한 설화집에 수록된 작품의 소유권이다. 『과경노』는 김재권과 박창목이 공동으로 수집 정리, 간행한 조선족설화집인데, 개별 작품에 대한 정보는 명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책에 실려 있는 <결교절의 유래>가 박창목의 『중국조선족 구전설화』에 <결교절>, 김재권의 『황구연전집』에 <결교절의 유래>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망평귀안과 전안례>, <주원장과 리성계> 등의 작품에도 나타난다.⁵⁾ 공동으로 수집 정리했기 공동의 작품인 동시에 개인의 작품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작품이 작가를 달리하며 다른 설화집에 수록된 것이나, 개인 설화집에 수록되면서 아무 설명도 없이 제목을 바꾼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김재권은 2001년 ‘백민성’이란 필명으로 『유서깊은 두만강』을 비롯하여 성격이 유사한 4권의 설화집을 간행하였다. 모두 “통정시관광지점안내”란 부제가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김재권 엮음”으로 되어 있어 남의 작품을 수록한 것이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록한 작품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명기해야 했다.

문제는 이 책에 실린 작품의 상당수가 『황구연전집』(2007·2008)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는 점이다. 『황구연전집』은 김재권이 황구연으로부터 수집한 것을 정리한 제보자와 작가 중심의 설화집이다. 이로 인하여 두 사람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작품들이 ‘황구연 구술, 김재권 수집 정리’한 작품으로 변이되고 말았다. 조선족설화의 전승과 유통 과정에 나타나는 이러한 변이와 혼란은 정해철·김현순이 ‘편저’한 『연변관광명소전설』(2007)에도 나타난다.

2.2. 한국에서의 유통 현황

김선풍의 『조선족구비문학총서』(1991)는 조선족설화를 한국에 본격적으로 소개하여 관심과 연구의 토대를 마련한 책이다. 영인본으로 간행했기 때문에

5) 『중국조선족 구전설화』가 박창목의 개인 작품집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작품 끝에 ‘연민’이란 자신의 필명을 명기한 것으로 보아 자신이 정리한 자신의 작품으로 수록했음을 알 수 있다.

변이는 일어나지 않았다. 『연변지역 조선족 문학연구』(1992)에는 23편의 조선족설화가 수록되어 있으나 작품의 서지 정보는 명기하지 않았다. 개별 작품에서 구술자와 정리자 모두 명기한 경우도 있고, 어느 한 쪽만 명기한 경우도 있고, 구술자와 정리자 모두 명기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체제와 성격이 다른 여러 작품집에서 수록했기 때문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백두산설화』(1994)에는 백두산 관련 설화가 수록되어 있는데, 『백두산전설』(1989)에 실려 있는 작품 전체와 다른 설화집에 실려 있는 백두산 관련 설화 몇 편을 수록하였다. 출전은 물론 정리자와 수집 지점, 수집 시기 등을 모두 명기하였다. 한국 맞춤법에 맞게 고치는 과정에 단어의 일부가 변이된 경우가 있다. 전반적으로 원전에 충실하고, 작품의 서지 정보도 비교적 정확하다.

『중국조선족 구전설화』(1994)는 조선족 작가 박창묵이 한국에서 간행한 조선족설화집이다. 자신의 작품을 비롯하여 대표성을 지닌 작품들을 수록했는데, 출전은 밝히지 않고 정리자만 명기하였다. 정리자 가운데 ‘박창묵’과 박창묵의 필명 ‘연민’이 사용되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구분해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른 작가들과 공동으로 수집 정리한 작품을 수록한 경우 ‘연민’이란 필명을 사용한 예가 많다.

『구전설화연구』(1994)에는 6편의 조선족설화가 수록되어 있다. 모두 『백두산전설』에서 수록한 것인데, 한국 맞춤법에 맞게 고쳤다. 작품별로 구술자, 수집지점, 수집시간, 수록된 원전과 면수는 명기했으나 수집 정리자는 밝히지 않았다. 『민간설화자료집』(1)·(2)·(3)(2006)에는 중국에서 간행된 설화집 3권이 원문대로 수록되어 있다. 『백두산 설화 연구』(1992)에도 백두산 관련 설화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개별 작품의 출전만 밝혔다. 한국에서 채록된 백두산설화 몇 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조선족설화와 한국설화를 구분하지 않은 사례이다.

한국에서 간행된 조선족설화집의 경우 중국 현지와 같은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일부 문헌에서 작가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만, 현지와 같이 제보자나 작가가 바뀌는 혼란은 없었다. 『연변지역 조선족 문학연구』와 같이 출전의 서지 정보와 수집, 정리자가 누락된 경우가 일부 있다. 이러한 현상 역시 조선족설화가 개인작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3. 조선족설화의 전승과 변이의 실상

3.1. 내용과 주제의 변이

조선족설화에는 전승과 유통 과정에 내용뿐만 아니라 주제까지 변이된 작품들이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거북산>인데, 이 작품은 한정춘이 수집 정리한 것과 최원련이 수집 정리한 두 유형이 있다.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실린 문헌에만 (1)과 (2)로 구분되어 있고 나머지는 제목이 같다. <거북산>의 경우 같은 작가의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수록된 문헌에 따라 내용과 의미에서 차이를 보인다. <거북산>의 전승과 유통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번호	작품명	수록 문헌·편집자, 저자	정리자
①	거북산	1987 『소년아동』 연변인민출판사	한정춘
②	거북산(1)	1991 『조선족전설집』 김태갑	최원련
③	거북산(2)	1991 『조선족전설집』 김태갑	한정춘
④	거북산	1995 『해당화』 한정춘	한정춘
⑤	거북산	1996 『중국조선족 구전설화』 박창목	최원련
⑥	거북산	1999 『두만강전설』 한정춘	한정춘
⑦	거북산	2007 『연변관광명소전설』 정해철·김현순	×

정상적으로 발표되었다면 <거북산>의 원형은 ①과 ②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정춘이 정리한 <거북산> 원형은 ①보다 늦게 발표된 ④이다. 문헌 ①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것은 확인할 수 없지만, 한정춘에 의하면 편집자가 원작 원고의 1/4 정도를 줄였다고 한다.

『조선족전설집』은 김태갑이 여러 작가로부터 작품을 투고받아 편집, 간행한 것이다. 이 책에는 최원련의 <거북산(1)>과 한정춘의 <거북산(2)>가 실려 있는데, 최원련의 경우는 확인할 수 없지만 한정춘이 보낸 작품의 원 제목은 그냥 <거북산>이었다. 김태갑이 제목을 바꾼 것은 같은 제목에 서로 다른 내용의 <거북산>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작품 ⑤는 <거북산(2)>를 그대로 수록한 것인데, 서지 정보는 밝히지 않고 끝에 ‘최원련’이란 이름만 명기하였다. 문헌 ⑤에서 중요한 것은 이 작품의 제목을 <거북산(2)>에서 <거북산>으로 바꾸었다는 사실이다. <거북산>이란 제목으로 발표된 최원련의 작품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한 작품만 수록했

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도 많다.

한정춘이 발표한 <거북산>은 4편인데, 모두 같은 제보자로부터 수집 정리한 것이다. 작품의 제목은 문헌 ②만 <거북산(2)>이고, 나머지는 모두 <거북산>이다. 한정춘의 작품들은 문헌에 따라 내용에서 상당한 변이를 보이고 있는데, 세 작품의 앞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먼 옛날 두만강변에 늙은 어부가 홀로 고기잡이를 하며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마음씨 착한 어부는 물고기를 잡아서는 가난한 마을사람들에게 얼마씩이라도 나누어 주곤 하였다. 마을사람들도 찰떡이나 술이 생기면 늙은 어부를 청해가곤 하였다.(③, 131면)

훈춘에서 도문쪽으로 90여리쯤 가면 유유히 흐르는 두만강 북쪽기슭에 못산과 동떨어져 고독하게 자리잡은 산이 있습니다. 마치도 주위의 동정을 살피는 듯하는 거부기처럼 생긴 이 산을 사람들은 거북산이라 부르는데 여기에는 눈물겨운 사랑의 이야기가 깃들어있습니다.

푸르른 물결 출렁이는 두만강에 잉어, 려어, 송어, 이면수 등 여러 가지 고기가 혼하던 까마아득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강언덕우의 아담한 초가집에는 날마다 고기잡이를 하며 외롭게 살아가는 늙은 어부가 있었습니다.

마음씨 어질고 착한 늙은 어부는 쪽배를 타고 두만강에다 고기그물을 늘어놓았다가 이른 아침이면 거두었는데 늘 생신한 물고기를 자기가 먹을만큼 남겨놓고는 아래마을 가난한 사람들에 나누어주곤 했습니다. 오는 정에 가는 정이라고 마을사람들도 찰떡이나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인품 고운 늙은 어부를 잊지 않고 저마다 꼭꼭 청해가곤 했습니다. 늙은 어부는 비록 마을사람들과 사이 뜬 동구밖에서 살지만 마음은 하냥 아래마을 사람들과 어어져있었습니다.(④, 42면)

훈춘에서 동쪽으로 90여리쯤 가면 유유히 흐르는 두만강 북쪽기슭에 못산과 동떨어져 고독하게 홀로 자리잡은 산이 있습니다. 마치도 주위의 동정을 살피는 듯하는 거부기처럼 생긴 이 산을 사람들은 예로부터 거북산이라 불렀답니다.

푸르른 물결 출렁이는 두만강에 잉어, 려어, 송어, 이면수 등 여러가지 고기가 혼하던 까마아득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강언덕우의 아담한 초가집에는 날마다 고기잡이를 하며 외롭게 살아가는

늙은 어부가 있었습니다. ……(⑥, 107면)

작품 ④는 ③에 비하여 4배 정도 분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작품 ③에 없는 거북산의 위치와 모양, 노인의 집과 두만강의 상황, 고기잡이하는 노인의 생활, 노인의 인정과 동네 사람들과의 우호적인 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전개되어 있다. 사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③은 거북이가 용궁에서 불사약을 가져다주는 것으로만 되어 있으나, ④는 늙은 어부가 거북이가 가져다준 약을 먹고 총각으로 젊어진 다음 처녀로 변신한 거북이와 혼인하여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변이되어 있다.

원작 ④에는 축약된 ③에 비하여 고을 원의 행패와 총각으로 변신한 어부의 비극적인 죽음이 강조되어 있다. 작가는 고을 원의 초법적인 행패와 이에 대한 백성들의 원망과 반응을 통해 민중의식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김태갑에 의해 축약되는 과정에 이 부분이 없어지고 줄거리 중심의 간단한 전설이 되고 말았다.

김태갑은 <서문>에서 작가들이 보낸 원고의 대부분을 수정했다고 하였다. “글재간이 모자라 그 정리된 이야기가 따분하고 구수한 맛이 적어” 수정하기도 했고, “전설의 단순성과 소박성에 손상을 줄 정도로 지나치게 가미한 흔적이 보이는 등 결함이 있기”⁶⁾ 때문에 수정한 경우도 있다고 했다. 김태갑이 한정춘의 원작 원고 ④를 작품 ③으로 축약 변이시킨 것은 후자의 경우이다. 결국 작품 ③은 제보자 한서홍의 이야기도, 정리자 한정춘의 작품도 아닌, 편집자 김태갑의 작품이 되고 말았다. 작품 ⑥은 ④와 유사하지만 서지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 자신의 작품을 다시 수록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일부 내용에서 변이된 것이 있기 때문에 출전의 서지 정보는 명기했어야 했다.

문헌 ⑦은 관광안내서로 간행되었기 때문에 수록한 작품의 정보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있다. 그러나 편저자인 정해철과 김현순이 아동문학 작가이자 민간문학 작가이고,⁷⁾ 조선족아동문학학회 회원들의 작품집으로 간행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그렇지도 않다. 회원 작가들의 작품을 모아 간행한 것이라면 개

6) 김태갑, <머리말>, 『조선족전설집』, 민족출판사(북경), 1991, 3-4면.

7) 정해철은 <신선동>(『조선족전설집』), <용두바위와 호두바위>(『중국조선족 구전설화』) 등을 발표한 민간문학과 아동문학 작가이다.

별 작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명시해야 했다. 작품의 정보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편저자의 작품으로 오해될 여지가 많다.

조선족설화가 문헌으로 전승, 유통되기 때문에 변이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전승과 유통의 과정에 나타나는 변이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선족설화의 변이가 구비설화와는 달리 편집자나 출판사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전승과 유통 과정에 표기나 내용의 일부만 변이되는 경우도 있지만, 의미와 주제가 달라질 정도로 변이된 경우도 있다.

본 항에서는 <거북산> 한 작품만 살펴보았지만, 이러한 변이는 조선족설화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개별 작품의 논의에 앞서 전승과 유통 과정에 일어난 이러한 변이들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한 변이가 아니라 의도된 것이거나, 의미와 주제에서 변이가 일어난 경우라면 다른 작품이나 이본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3.2. 제목의 변이

조선족설화는 전승과 유통의 과정에 제목이 변이되거나 유사한 제목의 출현으로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형제’를 소재로 한 이야기 가운데 관련성이 강한 몇 개 작품을 정리한 것이다.⁸⁾

작품군·작품명	수록 문헌	제보자	정리자	유형
1-①: 형제사이 ⁹⁾	1963 『조선족 민간문예자료집』 ²	유병흡	박창목	○
1-②: 형제사이	1979 『조선족문학선문집』 ¹	×	박창목	○
1-③: 형제사이	1982 『사랑산』	유병흡	박창목	○
1-④: 형제사이	1982 『연변민간문학집』	×	박창목	○
1-⑤: 哥倆	1982 『朝鮮民間故事選』(중국어)	俞丙治	朴昌默	○
1-⑥: 형제	1988 『연변의 견우직녀』(한국어)	유병흡	박창목	○
1-⑦: 형제사이	1992 『형제사이』	×	편집실	○
1-⑧: 형제사이	2006 『민간설화자료집』(1)(한국어)	유병흡	박창목	○

8) 제목에 ‘형제’라는 말이 들어 있는 조선족설화에는 <금덩이와 형제간>, <김서방과 3형제>, <내 형제>, <다섯 형제>, <륙 형제>, <세 형제>, <세 병신 의형제>, <여덟 형제 골짜기>, <오형제 집안 맘머느리>, <재간있는 형제>, <칠형제> 등 수십 편이 있다.

작품군·작품명	수록 문헌	제보자	정리자	유형
2: 형제	1984 『민간문학자료집』(4)	×	박창목 등	◎
3: 두 형제	1980 『천도복숭아』	×	김례삼	∞
4-①: 두 형제	1984 『민간문학자료집』(4)	민영식	박창목 등	☆
4-②: 두 형제	2006 『민간설화자료집』(3)(한국어)	민영식	박창목 등	☆
5: 두 형제	1984 『불로초』	방홍룡	리룡득	◇
6: 두 형제	1995 『농부와 런꽃공주』	김련화	최 준	□
7: 두 형제	2005 『청루에서 난 비명소리』	×	장봉조	▽
8-①: 의종은 두 형제	1963 『조선족 민간문학자료집』2	한병률	한병률	△
8-②: 의종은 형제	1982 『사랑산』	한병률	박창목	△
8-③: 의종은 형제	2008 『황구연전집』8	황구연	김재권	△

1군은 모두 박창목이 유병흡으로부터 수집 정리한 작품들이다.¹⁰⁾ 작품 1군의 내용은 모두 같지만 제목은 세 가지가 붙어 있다. 제보자를 밝힌 문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문헌도 있다. 제보자를 밝히지 않은 것은 작가보다는 출판사나 편집자의 의지가 개입된 결과로 보인다.

문헌 1-⑤는 상해문예출판사의 요청으로 연변민간문예연구회가 수집 정리한 작품들을 중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이 과정에 작품 1-⑤의 조선어 제목 <형제사이>가 <哥倆>이 되었다. 작품 1-⑥은 1-⑤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인데, 중국어 제목 <哥倆>이 한국어 <형제>로 번역되었다. 조선어에서 중국어로, 다시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제목이 <형제사이>, <哥倆>, <형제>로 변이된 것이다.

작품 2는 1군과 같은 박창목의 작품이지만, 다른 유형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다.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목을 1-⑥과 같은 <형제>가 된 것은 1-⑥의 제목 <형제>가 박창목 자신이 붙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어로 된 조선족설화를 중국어나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원래의 제목과 기존 작품의 제목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결과로 보인다.

작품 3~7군은 제목이 모두 <두 형제>로 같으나 내용은 각기 다른 별개의 유형이다. 제보자와 수집 정리한 작가, 그리고 내용이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9) 문헌 1-① 이 『민간설화자료집』(1)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어 이 자료를 참고하였다.

10) <1-⑦>은 작가 정보는 명기하지 않았으나, 내용은 위의 작품과 일치한다.

고 제목이 모두 같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두 형제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1~8군 모두 두 형제와 관련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제목이 다른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8군은 같은 유형이지만 각기 다른 작가에 의해 정리되었기 때문에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변이는 전승과 유통의 과정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제보자와 정리자가 다른 것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8-①과 8-②는 같은 제보자의 작품이지만 제목은 물론 내용에서도 차이가 있다. 8-①은 제보자가 직접 정리한 것으로 원자료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으나, 8-②는 전문 작가에 의해 정리되었기 때문에 조선족설화의 일반적인 성격을 지닌다.¹¹⁾ 이러한 현상은 제보자 한병률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정리한 다른 작품에도 나타난다.¹²⁾

<병조판서가 된 머슴>(『민간문학자료집(4)』)과 <바우돌과 현부인>(『바우돌과 현부인』)은 같은 작가의 작품이지만 제목과 내용의 일부가 변이된 경우이다. 전자는 박창목, 김태갑, 김재권이 공동으로 수집 정리한 문헌에 실린 작품이고, 후자는 박창목이 나중에 자신의 개인 설화집에 수록한 작품이다. 제보자와 수집 지점과 수집 시기가 같은 것으로 보아 전자도 박창목이 수집하여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³⁾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목은 물론 내용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두 작품의 서두 부분을 인용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옛날 한 시골에 조실부모하고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는 바우돌이라는 더벅머리 총각이 있었다. 머슴살이를 하는 신세라 마음이 비단갈고 일을 황소같이 해도 딸 주자는 사람이 없었다.(129-130면)

옛날 한 시골에 어섯눈도 뜨기 전에 량친부모를 여인 바우돌이라는 총각이 있었는데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다. 밤송이 우영송이 다 끼여보며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지만 남아 이십이 넘도록 장가갈 생각조차 못하였다. 밤이면 남의 집 월랑에서 발편잠 한 번 못 자보고 낮이면 고된 일로 시달리는 신세니

11) 이현홍, 「중국 조선족 문헌정착설화의 변이양상」, 『한국문학논총』, 제20집, 한국문화회, 1997, 31-57면. 김선풍, 「재중 한족의 설화연구」, 『한국민속학』, 24집, 한국민속학회, 1991, 1-28면.

12) 임철호, 「조선족설화의 형성과 장르적 성격」, 『우리말글』 45, 우리말글학회, 2009, 140-143면.

13) 수집자와 정리자가 다를 경우도 생각할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힘이 장사여서 지고 다니는 나무짐은 산같이 높았고 마음이 깨끗하여 맑은 샘물 같았다. 하지만 의지가없는 신세라 누구하나 딸 주자는 사람이 없었다.(82면)

바우돌이라는 천한 머슴이 노인의 중매로 얻은 부인의 헌신적인 도움과 노력으로 병조판서의 지위에 오른다는 전반적인 내용은 같다. 박창묵은 공동으로 발표한 작품을 자신의 작품집에 수록하면서 제목과 내용의 일부를 바꾸었다. 전자는 줄거리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는 반면에 후자는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과 묘사로 2배 이상 분량이 늘어나 있다.

공동작으로 발표한 작품을 개인작으로 발표하면서 작가의 개성과 문체가 가미되었다. 조선족설화는 개인작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문장은 물론 단어 하나에 따라서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작품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작품의 의미는 물론 연구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먼저 발표한 <바우돌과 현부인>은 원자료에 더 가까운 작품이고, <병조판서가 된 머슴>은 자유롭게 정리하는 과정에 작가의 개성과 의식이 개입되면서 변이된 작품이다.

3.3. 제목과 유형의 혼란

조선족설화에는 다른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제목을 가진 작품들이 많다. 이로 인해 제목만으로는 성격이나 내용을 짐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작품 간의 변별력도 없어 혼란이 제기된다. <화목한 가정>은 가족의 실수에 대하여 구성원 모두가 서로 자신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화목한 가정>이란 제목의 조선족설화에는 4개 유형이 있는데, <거북산>의 경우와 같이 한 문헌에 다른 유형이 동시에 실린 경우만 (1)과 (2)로 구분되어 있다.

번호	제목	문헌	정리자	유형
①	화목한 가정	1963 『민간문학자료집』(2) ¹⁴⁾	한병률	○
②	화목한 가정	1982 『민간문학자료집』③	리창인	☆
③	화목한 가정	1982 『사랑산』(박창묵)	박창묵	◎ ¹⁵⁾
④	화목한 가정(1)	1984 『민간문학자료집』(4) ¹⁶⁾	연변분회	◇

번호	제목	문헌	정리자	유형
⑤	화목한 가정(2)	1984 『민간문학자료집(4)』	연변분회	□
⑥	화목한 가정	1993 『중국조선민족문학선집⑧』	리창인	☆
⑦	화목한 가정	2006 『민간설화자료집(2)』	리창인	☆
⑧	화목한 가정(1)	2006 『민간설화자료집(3)』	연변분회	◇
⑨	화목한 가정(2)	2006 『민간설화자료집(3)』	연변분회	□

4개 유형 가운데 3개는 작품 ②, ④, ⑤가 원작이다. 나중에 간행된 설화집 ⑥, ⑦, ⑧·⑨에는 원작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작품 ②와 ⑤는 며느리가 빨래를 삶다가 태운 것을 두고 며느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이 서로 자신의 탓이라고 주장하는 전반적인 내용은 같지만, 제보자와 정리자가 다르기 때문에 세부 내용과 전개에서는 차이가 있다. ②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부탁하고 물을 길러 간 사이에 시어머니가 실수하여 태운 것이고, ⑤는 며느리가 빨래를 삶다가 자신의 부주의 때문에 태우게 된 내용이다.

작품 ①·③은 ②, ④, ⑤와는 다른 유형의 <화목한 가정>이다. 내용이 다르면 제목도 달라져야 하지만, 주제가 같기 때문에 같은 제목을 붙인 것으로 생각된다. 작품 ①과 ③은 앞에서 살펴본 <의좋은 두 형제>, <의좋은 형제>와 같이 한 제보자의 이야기를 각기 다른 사람이 정리한 것이다. 전반적인 전개는 같지만 내용의 일부와 문장에서 차이를 보인다. ①은 한병률이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고, ③은 작가 박창목이 한병률의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다. 작품 ①과 ③의 원자료는 시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한 제보자의 기억 속에 존재했기 때문에 내용상의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작품에서 가장 큰 변이는 며느리가 잘못하여 태운 안주에 대한 주인의 반응이다. 작품 ①에서 주인은 화를 내면서 누구의 잘못인지를 추궁하고 있으나 ③에서는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한 자신의 탓이라며 손님에게 용서를 구한다. <화목한 가정>이 갖는 교훈성 측면에서 보면 ①보다는 ③이 더 논리적

14) 이 자료는 『민간설화자료집(1)』에 실린 것이다. 『민간문학자료집(2)』에는 제보자 한병률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정리한 90편의 작품이 실려 있다.

15) 작품 ①과 ③을 유형 ○와 ◎로 비슷하게 표시한 것은 ①은 제보자가 직접 정리한 원자료 수준의 작품이고, ③은 ①을 정리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16) 『민간문학자료집(3)』은 『민간설화자료집(2)』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이다. 이러한 교훈성과 논리성은 원자료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①을 작품 ③으로 정리하는 과정에 개입된 작가의 의식과 역량 때문이다.

<화목한 가정>을 구비설화로 보면 이러한 변이들은 전승과정에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단순한 현상이 된다. 그러나 제보자가 직접 정리한 작품 ①도 조선족의 구비설화가 아닌 조선족설화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보자와 정리자, 그리고 수록된 문헌의 정보는 명기되어야 한다. 또한 다른 유형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면 변별력이 있는 제목을 붙여야 했을 것이다.

<가정인심>(『블로초』)과 <한 가정의 인심>(『민간문학자료집』③)은 리룡득이 정리한 같은 유형의 작품인데도 제목을 달리 하였다. 제보자와 수록된 문헌, 그리고 일부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들 작품의 경우 각기 다른 제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이야기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로, 주기덕의 <귀인봉산>(『조선족전설집』)과 한정춘의 <구새바위>(『두만강전설집』)는 이성계가 활숨씨로 통두란과 박달천을 만나게 된 같은 유형인데도 불구하고 제목을 달리 하였다. <말하는 남생이 이야기>(『연변민간문학집』), <말하는 남생이>(『천도복숭아』), <민심과 천심>(『민간문학자료집』③)은 모두 같은 유형이다. 앞의 두 작품은 김례삼이 정리한 것인데, 개인 작품집 『천도복숭아』에 수록할 때 제목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민심과 천심>은 정만춘이 정리한 작품으로, 전반적인 내용은 앞의 두 작품과 같지만 제목은 완전히 다르다.

김경택이 정리한 <누루골>(『조선족전설집』)과 리룡득이 정리한 <노루골>(『조선족전설집』)은 제목은 같지만 별개 유형의 작품이다. 그런데 특이한 현상은 내용이 다른 두 이야기가 같은 제목으로 한 설화집에 수록되어 있는 점이다. 김경택이 정리한 것은 여진국 왕이 왕후를 위해 노루를 잡는 내용이고, 리룡득이 정리한 것은 노루 고기를 탐내는 청태조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자 흰 옷 입은 총각이 나타나 노루를 몰아주었다는 내용이다.

조선족설화의 제목에는 <10년 뒤에 처가로 다시 가다>(『파경노』), <감자의 몸에는 어째서 눈이 그처럼 많은가>(『민간문학자료집』③), <억울한 사람을 심문하여 진짜 도적을 잡아내다>(『도적잡은 이야기』) 등과 같이 내용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작품

은 주인공의 이름이나 호랑이, 소 등과 같이 한 단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 같은 제목을 가진 다른 유형의 작품이 생기게 되어 혼란이 초래된다.

설화에 제목을 붙이는 정해진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목으로 설화의 내용과 성격을 이해할 수 있게 할 필요는 있다. 또한 제목만으로도 다른 유형의 작품과 변별력을 갖게 할 필요도 있다. 박문수가 등장한다고 해서 다 <박문수>가 아니라 <박문수를 가르쳐 준 신동>, <열녀에게 뺨을 맞은 박문수>, <박문수도 못 당한 아이>, <억울한 누명을 벗긴 박문수>, <효자 발친 해 준 박문수>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제목을 붙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¹⁷⁾

개인작으로 발표된 조선족설화의 제목을 임의로 고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전승과 유통의 과정에 나타난 문제들을 이대로 방치할 수도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선족설화의 정리와 분류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족설화의 분류에 대해서는 김동훈과 우상렬에 의해 시도되기는 했으나 ‘한국민담 유형표’에 대입하는 수준이었다.¹⁸⁾ 조선족설화는 더 이상 확대 재생산되지 않고 있어 소멸기로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선족설화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와 체계적인 분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4. 제보자와 작가의 변이

조선족설화의 전승과 유통 과정에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변이는 제보자와 작가가 바뀌는 현상이다. 제보자와 작가가 변이된 배경에 의도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다. <구새바위>의 전승과 유통 현황은 다음과 같다.

번호	작품명	수록문헌·편찬자, 저자	정리자
①	구새바위	1995 『해당화』 한정춘	한정춘
②	구새바위	1999 『두만강전설』 한정춘	한정춘

17) 김선풍, 「조선족 설화연구」, 『조선족구비문학총서』 1권, 민속원, 1991, 13-20면.

18) 김동훈, 『중국 조선족 구전설화 연구』, 한국문화사, 1999, 213-310면. 우상렬, 『중국 조선족 설화의 종합적 연구』, 국학자료원, 2002, 185-271면.

번호	작품명	수록문헌·편찬자, 저자	정리자
③	구새바위	2001 『유서깊은 두만강반』 백민성	×
④	구새바위	2006 『두만강압록강류역지명전설』 한정춘	한정춘
⑤	구새바위	2007 『연변관광명소전설』 정해철·김현순	×
⑥	구새바위	2008 『황구연전집07』 김재권	(김재권)

<구새바위>는 한정춘이 수집 정리한 작품인데, 자신의 작품집 ①, ②, ④와 다른 작가의 작품집 ③, ⑤, ⑥에 수록되어 있다. 다른 작가의 작품집 가운데 ③은 “백민성 엮음”, ⑤는 “정해철 김현순 편저”, ⑥은 “김재권 수집 정리”로 되어 있다. ‘엮음’과 ‘편저’, ‘수집 정리’의 개념이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작품집에는 한정춘의 작품 ①이 수록되어 있다.

작품 ④는 ①·②에 비하여 축약되어 있다. ①·②에서 이성계는 박달천을 유인하기 위해 세 번에 걸쳐 활숨씨를 보이지만 ④에는 한 번으로 축약되어 있다. 작가에 의하면 출판사에서 분량을 제한하여 한 번으로 축약시켰다는 것이다. 조선족설화의 경우 출판사의 사정이 작가와 작품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이다. 앞서 살펴본 <거북산>처럼 작가와 상의 없이 편집자가 일방적으로 축약하거나 변이시킨 경우도 많다.

문헌 ③은 김재권이 ‘백민성’이란 필명으로 ‘엮음’ 설화집이다. 학술적 목적에서 간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작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재권의 작품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많다. 작품 ①과 ③의 앞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흰눈을 떠이고 거연히 솟은 백두산에서 시작된 두만강은 동으로 일사천리로 내달리다가 남양과 도문사이를 지나 30여리 되는 곳에 이르러 구새통처럼 생긴 바위를 감돌아 유유히 동해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산을 쿡통산(구명산)이라 부르고 산꼭대기에 솟아있는 바위를 구새바위라 부르는데 여기에는 구수한 전설이 깃들어있습니다.(①, 52면)

흰눈을 떠이고 거연히 솟은 백두산에서 시작된 두만강은 동으로 일사천리로 내달리다가 남양과 도문사이를 지나 30여리되는 곳에 이르러 구새통처럼 생긴 바위를 감돌아 유유히 동해로 흐르고 있다. 그 산은 쿡통산(구명산)이라 부르고 산꼭대기에 솟아있는 바위를 구새바위라 부르는데 여기에는 유구한 전설이

것들이었다.(③, 164면)

두 작품은 문장 끝의 존칭과 ‘구수한’ 등의 일부 단어에서 약간의 변이가 있을 뿐 전반적인 내용은 물론 문장까지 같다. 그렇다면 김재권의 작품 ③은 간행년도가 앞선 한정춘의 작품 ①을 그대로 수록한 것이 된다. 김재권은 한정춘의 작품을 자신이 엮은 설화집에 수록하면서 제보자는 물론 정리자, 수록된 문헌의 서지 정보도 밝히지 않았다.

<구새바위>의 전승과 유통에서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작품 ③이 문헌 ⑥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문헌 ⑥은 김재권이 ‘이야기대왕 황구연’으로부터 수집한 것을 정리한 설화집이다. 이로 인하여 ‘한정춘’이 ‘최기환’으로부터 수집 정리한 <구새바위>가 ‘김재권’이 ‘황구연’으로부터 수집 정리한 작품으로 변이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문헌 ⑥에 수록되어 있는 다른 작품의 경우에도 나타나 있다.

작품 ⑤는 ①·②를 축약, 변이시켜 다시 정리한 것이다. 얼핏 보면 다른 작품처럼 보이지만 중간중간에 ①·②의 문장이 그대로 들어 있어 같은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유통 과정에 제보자와 작가가 누락되었고, 내용 또한 변이되면서 작가 불명의 작품이 되고 말았다. <7자나무>의 변이도 <구새바위>의 경우와 유사하다.

번호	작품	문헌	정리자
①	7자나무	1990 『금망아지』 황상박(초판)	황상박
②	7자나무	2001 『유서깊은 구수하반』 백민성	김재권
③	7자나무	2006 『금망아지』 황상박(2판)	황상박
④	7자나무	2008 『황구연전집07』 김재권	김재권

작품 ①은 황상박이 1978년 용정시 태양향에서 ‘럼상륙’으로부터 수집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황상박의 『금망아지』는 1990년 초판이 간행된 다음 2006년에 재판이 간행되었다. 2001년 김재권은 ‘백민성’이란 필명으로 문헌 ②를 간행하면서 출전을 밝히지 않고 이 작품을 수록했다가 2008년에는 『황구연전집』에 자신의 작품으로 수록하였다. 김재권은 문헌 ②의 수록 과정을 통해 황상박의 작품을 작가 불명의 작품으로 만든 다음 ④의 수록 과정을 거쳐 자신이 황구연으로부터 수집하여 정리한 작품으로 변이시켰다.

현재 『금강아지』 초판본은 절판되어 유통되지 않고 있는데, 재판본을 간행하면서 초판본과의 구체적인 관계를 설명하지 않았다.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하는 독자들에게는 항상박이 김재권의 작품을 수록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의 작품은 물론 자신의 작품을 다른 문헌에 사시 수록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품과 문헌에 대한 정보를 명기하게 해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조선족설화 작가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결론

조선족설화의 전승과 유통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이의 실상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조선족설화와 조선족설화집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못한 한계는 있지만, 대표적인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조선족설화와 조선족설화집의 전반적인 변이양상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족설화는 문헌으로 전승되는 개인작이기 때문에 전승과 유통에는 반드시 제보자와 작가, 그리고 발표되거나 수록된 문헌의 서지 정보가 명기되어야 한다. 제보자를 명기해야 하는 것은 구비문학의 속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고, 작가를 밝혀야 하는 것은 개인작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문헌의 서지 정보를 명시해야 하는 것은 문헌 전승의 과정에 변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조선족설화의 형성 초기에는 대부분의 작품이 잡지나 문예지 등에 발표되었다. 당국의 정책적 배려에 의해 조선족설화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설화집의 간행도 정부기관이나 문예단체 등에 의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당국의 지침과 검열 등으로 많은 변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 나중에 작가 중심의 설화집이 간행될 때 원작을 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당국과 편집자에 의해 변이된 내용의 일부는 파악할 수 있다.

조선족설화는 한 작품이 여러 문헌에 중복 수록되는 경우가 많은데, 수록된 문헌과 편집자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변이가 나타난다. 먼저 실린 문헌의 정보를 명기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공동으로 정리하여 간행한 작품을 개인 작품으로 변이시켜 수록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 유통된 조선족설화의 경

우에도 제보자와 작가, 수록된 문헌의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나 중국 현지에 비해서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조선족설화의 변이는 구비설화와 달리 특정인의 의도적인 행위에 의한 경우가 많다. <거북산>처럼 편집자에 의해 의미와 주제가 달라질 정도로 변이된 경우도 있다. 작가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편집자의 요청으로 작가가 직접 변이시킨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든 작가로서는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삼자의 개입에 의한 의도적인 변이라 할 수 있다.

조선족설화의 전승과 유통에서 내용은 물론 제목이 바뀌는 현상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제목의 변이는 다른 작품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작품의 정보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조선족설화의 제목에는 처음부터 잘못 붙여진 경우도 많다. 다른 유형에 같은 제목을 붙인 경우도 있고, 같은 유형의 작품인데도 각기 다른 제목이 붙게 된 경우도 있다. 조선어로 된 제목이 중국어로 번역되었다가 다시 조선어나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혼란이 나타난 경우도 있다.

조선족설화의 변이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제보자와 작가가 변이된 것이다. 제보자와 작가가 변이되었다는 것은 다른 작가의 다른 작품으로 변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정춘의 <구새바위>와 황상박의 <7자나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특히 김재권의 『황구연전집』에 많이 나타난다. 조선족설화의 유통 질서가 문란해질 뿐만 아니라 개인작으로서의 조선족설화가 지니는 장르적 성격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리와 시정이 요구된다.

조선족설화의 전승과 유통 과정에 일어나는 이러한 변이들은 어떤 작품을 연구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북산>의 경우 한정춘이 정리한 작품이지만, 수록 문헌에 따라서 주제와 의미에서 차이가 날 정도로 변이되어 있다. 편집자 김태갑은 한정춘이 정리하면서 개입시킨 민중의 저항과 비극적인 죽음을 문제 삼아 이 부분을 축약시켰다. 따라서 <거북산>은 현장성이 살아 있는 제보자 한서홍의 이야기도 아니고, 민중의식을 개입시킨 한정춘의 작품도 아닌, 이를 축약 변이시킨 편집자 김태갑의 작품이 되고 말았다.

본고는 조선족설화와 조선족설화집의 전승과 유통 과정에 일어난 변이의 실상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조선족설화를 조선족의 구비설화로 이해하면 이러한 변이들은 전승의 과정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 된다. 그러나 조선족설화는 조선족의 설화가 아닌 개인작이기 때문에 변이가 지니는 의미가 달라진다. 향후 조선족설화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변이가 일어난 배경과 변이가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가린 미하일롭스끼, 『백두산민담』, 『조선·만주·요동반도기행』, 1898.
- 김동훈, 『중국 조선족 구전설화 연구』, 한국문화사(서울), 1999.
- 김동훈·김도권, 『중국 조선민족 문학선집』⑧·⑨, 민족출판사(북경), 1993.
- 김례삼, 『천도복숭아』, 연변인민출판사, 1980.
- 김선평, 『재중 한족의 설화 연구』, 『한국민속학』, 24집, 한국민속학회, 1991, 1-28면
- 김선평, 『조선족 설화연구』, 『조선족구비문학총서』 제1권, 민속원, 1991, 13-20면.
- 김선평, 『조선족구비문학총서』 제1권~제21권, 민속원, 1991.
- 김재권, 『소년부사』,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85.
- 김재권, 『유서깊은 명동촌』, 연변인민출판사, 2001.
- 김재권, 『유서깊은 해랑강반』, 연변인민출판사, 2001.
- 김재권, 『친생배필』, 연변인민출판사, 1986.
- 김재권, 『호랑이옛말 50컬레』, 연변인민출판사, 1993.
- 김재권, 『황구연전집』 ①~⑩, 연변인민출판사, 2008-2009.
- 김재권, 『효부중』, 민족출판사(북경), 1992.
- 김재권·박창목, 『파경노』, 민족출판사(북경), 1989.
- 김충묵 등, 『깍쟁이양반』, 연변인민출판사, 1981.
- 김태갑, 『조선족전설집』, 민족출판사(북경), 1991.
- 김태갑, 『항일전설설화집』, 연변인민출판사, 1990.
- 료령성 관전현 문화관·관전현 민족사무위원회, 『蓮花仙子』, 1984.
- 리룡득, 『꽃사슴』, 연변인민출판사, 1983.
- 리룡득, 『도적잡은 이야기』,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1990
- 리룡득, 『불로초』, 료녕민족출판사, 1984.
- 리룡득, 『하하하 호호호』, 연변인민출판사, 1989.
- 리천록·최룡관, 『백두산전설』, 연변인민출판사, 1989.
- 림승환 등, 『팔선녀』,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87.
- 박창목 등, 『민간문학자료집(4)』, 연변인민출판사, 1984.

- 박창목, 『바우돌과 현부인』, 룡녕민족출판사(심양), 1985.
- 박창목, 『사랑산』, 연변인민출판사, 1982.
- 박창목, 『중국조선족 구전설화』, 백송(서울), 1994.
- 배영진, 『金德順故事集』, 상해문예출판사, 1982.
- 백민성, 『유서깊은 구수하반』, 연변인민출판사, 2001.
- 백민성, 『유서깊은 두만강반』, 연변인민출판사, 2001.
- 소재영 등, 『연변지역 조선족 문학연구』,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2.
- 연변민간문예연구조, 『조선족 민간문예자료집』 제2집, 연변인민출판사, 1963.
- 연변민간문예연구회, 『朝鮮族民間故事選』, 상해문예출판사, 1982.
- 연변민간문학연구회, 『연변민간문학집』, 연변인민출판사, 1979.
- 연변민간문학연구회, 『연변의 견우직녀』, 교양사(서울), 1988.
- 延邊朝鮮族自治州 民間文學集成編委會, 『吉林省民間故事集成』上・下, 延邊人民出版社, 1987.
- 延邊朝鮮族自治州 民間文學集成編委會, 『玉女池』, 延邊人民出版社, 1980.
- 우상렬, 『중국 조선족설화의 종합적 연구』, 국학자료원(서울), 2002.
- 유봉건 채집, 『長白山江岡志略』, 『청조말기의 지방문헌』, 1908.
- 이헌홍, 「중국 조선족 문헌정착설화의 변이양상」, 『한국문학논총』, 제20집, 한국문학회, 1997, 29-65면.
- 이헌홍, 「중국 조선족 문헌정착설화의 변이양상」, 『한국문학논총』, 제20집, 한국문학회, 1997, 31-57면.
- 임승환 · 한광일 · 서종식, 『팔선녀』,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87.
- 임철호, 「조선족설화의 형성과 장르적 성격」, 『우리말글』, 45집, 우리말글학회, 2009, 171~151면.
- 장동운 등, 『짜개바지』, 룡녕인민출판사, 1984.
- 장봉조, 『청루에서 난 비명소리』, 룡녕민족출판사, 2005.
- 정길운 등, 『인삼처녀』, 연변인민출판사, 1962.
- 정해철 · 김현순, 『연변관광명소전설』, 연변인민출판사, 2007.
- 조문도서편집부, 『형제사이』,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1992.
- 중국민간문예연구회 연변분회, 『민간문학자료집』③, 연변인민출판사, 1982.

- 중국민간문예연구회 연변분회, 『민간문학자료집』(4), 연변인민출판사, 1984.
- 최 준, 『농부와 런꽃공주』, 연변인민출판사, 1995.
- 최용린 · 최건, 『조선족문학선집』 제1책, 연변대학 중문학부 조선어강좌, 1979.
- 최인학, 『구전설화연구』, 새문사(서울), 1994.
- 최인학, 『백두산설화』, 밀알(서울), 1994.
- 한정춘, 『두만강 압록강 류역 지명전설』, 연변인민출판사, 2006.
- 한정춘, 『두만강전설집』, 연변인민출판사, 1999.
- 한정춘, 『해당화』, 연변인민출판사, 1995.
- 허경진 · 허휘훈 등, 『민간설화자료집』(1) · (2) · (3), 보고사, 2006.
- 황상박, 『금망아지』, 연변인민출판사, 1990 · 2006.
- 흑룡강 민간문예연구회, 『삼돌이와 호랑이』,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86.

【국문초록】

조선족설화는 문헌으로 전승되는 개인작이기 때문에 구비설화에 비하여 변이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족설화의 전승과 유통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조선족설화의 변이는 구비설화와는 달리 의도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선족설화의 변이에는 조선족설화가 개인작이 아니라 조선족의 설화, 조선족의 구비설화라는 막연한 인식이 깔려 있다.

조선족설화 가운데에는 작자의 의도나 주제가 달라질 정도로 변이된 경우가 있다. 발표와 출판의 과정에 당국과 출판사, 그리고 편집자가 개입된 결과이다. 출판 여건 때문에 일어난 변이도 있고, 정치사회적 이데올로기와 조선족설화에 대한 인식 때문에 변이된 경우도 있다. 전승과 번역의 과정에 제목이 변이되어 다른 작품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다. 같은 제목을 가진 다른 유형의 작품도 있고, 다른 유형의 작품들이 같은 제목을 갖게 된 경우도 많다. 조선족설화의 변이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제보자와 정리자가 바뀌는 현상이다. 작가의 변이에 의도성이 개입되었다는 것은 남의 작품을 도용한 것이 된다. 이는 조선족설화의 전승과 유통에 혼란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작품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조선족설화의 변이는 연구의 대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작가의 작품이면서도 어느 문헌에 수록된 것이냐에 따라 연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변이가 심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작품의 서지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야 함은 물론 연구에 앞서 원본을 찾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 조선족, 조선족설화, 구비설화, 변이, 유통, 전승, 제보자, 정리자

The Circulation and Transmission of the Folk Tales of Chosunjok

Lim, Cheol-ho

It is usually thought that the folk tales of Chosunjok have no alteration in the process of transmission. The reason is that the folk tales have been handed down in the form of books. But in reality, there exist so many versions of the same tale. The alteration of the folk tales of Chosunjok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oral folk tales of Chosunjok in the fact that the alteration of the folk tales is sometimes intentionally made by some specific authors.

This phenomenon happens in the wrong concept that the folk tales of Chosunjok are not the stories written by individual authors but a part of the oral folk tales of Chosunjok people. As the folk tales of Chosunjok are the results of individual authors, not only the names of the reporters and the person who arranged the stories but also the bibliographical information of the books which the folk tales are contained should be published, too.

The alteration of the folk tales of Chosunjok happens by many reasons: for example, the intentional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the publisher and the editor, such publishing circumstances as the limited pages, the change of social ideology and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the folk

tales, and intentional alteration of the authors themselves.

In the circulation and transmission of the folk tales of Chosunjok, great care should be taken not to change the names of the reporters and the persons who arranged the folk tales. Great attention should be paid not to change the names of the authors, too. That is the reason when a scholar determined to study the folk tales of Chosunjok, he should keep in mind the fact that there exist many variations of the same folk tale.

keywords : Chosunjok, the folk tales of Chosunjok, oral folk tales of Chosunjok, alteration of the folk tales, circulation of the folk tales, transmission of the folk tales.

이 논문은 2009년 7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09년 8월 10일에 심사 완료되어 8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